



김래용(협성대)

1. 서론

요엘서의 핵심 논쟁 중의 하나는 요엘서의 통일성에 관한 것이다.¹⁾ 요엘서의 전반부(을 1:1-2:27[MT 1-2장] 혹은 1:1-2:17)와 후반부(을 2:28-3:21[MT 3-4장] 혹은 2:18-3:21) 사이의 통일성의 문제는 오랫동안 학자들의 사이의 큰 논쟁이 되었다. 통일성을 의심하는 학자들은 요엘서의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의 저자가 다르다고 보았다. 대체로 이들은 요엘서의 전반부는 포로기 이전의 저

* 이 연구는 2019년도 협성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2019-0009).

1) 요엘서의 통일성의 자세한 논의를 위해, Rex Mason, *Zephaniah, Habakkuk, Joel*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4), 103-112; Graham S. Ogden & Richard R. Deutsch, *Joel & Malachi: A Promise of Hope-A Call to Obedience*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 Co., 1987), 7-8; John Barton, *Joel and Obadiah*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1), 5-14; James L. Crenshaw, *Joel*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8), 29-34; 홍성혁, "요엘 4장의 묵시적 종말론 모티프와 그 기능: 아혜의 시온 통치를 통한 새 세상 도래 부각", 『구약논단』 52집 (2014년 6월), 187-196 참조.

자에 의해 쓰였고, 후반부는 포로기 이후의 저자에 의해 쓰였기에 둘 사이에 통일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²⁾

이와는 반대로 볼프(H. W. Wolff)는 요엘서의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의 통일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³⁾ 이것을 위해 그는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단어를 제시하였다.⁴⁾ ‘선포하여라 … 소집하여라’(욘 1:14//3:9), ‘이는 그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다’(욘 1:15, 2:1//3:14), ‘야웨의 날이 온다’(욘 2:1//3:4), ‘하늘과 땅이 흔들린다’(욘 2:10//4:16), ‘모아라’(욘 2:16//3:2, 11). 게다가 볼프는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의 주제적 평행도 제시하였다.⁵⁾ 식량의 부족에 대한 탄원(욘 1:4-20)은 식량이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욘 2:21-27)과 균형을 이루고, 예루살렘에 임박한 종말론적인 재난 선포(욘 2:1-11)는 예루살렘의 회복 약속(욘 3:1-3, 9-17)과 균형을 이루며, ‘야웨께 돌아오라’는 부름(욘 2:12-17)은 영의 부음 및 시온의 구원(욘 2:28-32)과 균형을 이룬다고 보았다. 이러한 주장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수용되었는데, 이들은 전반부를 탄원으로 후반부를 탄원에 대한 답변/약속으로 이해하였다.

알스트룀(G. W. Ahlström)은 요엘 2장 18절을 터닝포인트로 보고 요엘서를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그는 전반부(욘 1:2-2:17)가 탄원이라기 보다는 탄원이 실행될 수밖에 없는 실질적 상황에 대한 묘사라고 보았으며, 후반부(욘 2:18-3:21)는 백성들의 탄원에 대한 야웨의 약속이라고 보았다. 특별히 그는 전반부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해 부정적으로 말해진 것들이 후반부에서는 긍정적으로 말해진다고 보았다.⁶⁾ 옥덴(G. S. Ogden)은 요엘 1장 1절-2장 17절이 백성들에게 임한 재앙과 탄원을 언급하고, 요엘 2장 18-32절은 탄원에 대한 야

2) 메이슨(Rex Mason)은 통일성을 의심하는 학자로 M. Vernes, J. W. Rothstein, B. Duhamel을 언급했으며, E. Sellin, J. A. Bewer, T. H. Robinson, O. Eissfeldt는 이러한 주장을 본질적으로 공유한다고 보았다. Rex Mason, *윗글*, 105 참조.

3) *윗글*, 108.

4) Hans Walter Wolff, *Joel and Amo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7), 8 참조.

5) *윗글*, 7.

6) G. W. Ahlström, *Joel and the Temple Cult of Jerusalem* (Leiden: E. J. Brill, 1971), 130-137.

위의 답변과 약속을 언급하며, 요엘 3장 1-21절은 야웨의 답변(욥 2:18-27)과 약속(욥 2:28-32)에 대한 보충이라고 보았다.⁷⁾ 바톤(John Barton)은 요엘 1장 2절-2장 17절은 백성들의 탄원을 언급하고, 요엘 2장 18-27절은 야웨의 탄원에 대한 답변이며, 요엘 2장 28절-3장 21절은 이방 나라들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언급하는 잡다한 신탁들로 특별히 후대에 모아진 모음집이라고 보았다.⁸⁾ 아시스(Elie Assis)는 요엘서를 3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요엘 1장 2절-2장 17절은 메뚜기 재앙에 대한 언급과 제사장들의 탄원을 언급하며, 요엘 2장 18절-3장 17절은 제사장들의 탄원에 대한 야웨의 답변을 언급하는데, 특별히 요엘 2장 18-27절은 메뚜기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언급하고, 요엘 2장 28절-3장 17절은 이방 나라들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언급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요엘 3장 18-21절은 앞부분에 대한 요약으로 18절은 농작물의 회복을 언급하고, 19-21절은 민족의 회복을 언급한다고 보았다.⁹⁾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통일성을 주장한 학자들의 공통점은 요엘 2장 17절과 18절을 기준으로 요엘서를 나누고, 전반부(욥 1:1-2:17)를 탄원으로 후반부(욥 2:18-3:21)를 야웨의 답변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요엘서의 전체적인 내용과 구조를 볼 때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요엘서의 전반부를 마감하는 요엘 2장 17절에 언급된 제사장들(백성들의 대표)의 3가지 탄원이 요엘서의 후반부에서 야웨의 답변형식으로 3번이나 반복되고 있음을 주목하지는 못했다.¹⁰⁾ 그리하여 이 논문은 요엘 2장 17절의 3가지 탄원을 요엘서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로 보고, 전반부의 36개의 절(욥 1:1-2:16)은 요엘 2장 17절의 3개의 탄원을 형성하는 배경이 되며, 후반부의 36개의 절(욥 2:18-3:21)은 구원신탁을 형성하는데 철저하게 요엘 2장 17절의 3개

7) Graham S. Ogden & Richard R. Deusch, *윗글*, 8-50.

8) John Barton, *윗글*, 39-111.

9) Elie Assis, *The Book of Joel: A Prophet between Calamity and Hope* (New York: Bloomsbury, 2013), 53.

10) *윗글*, 256-260 참조.

의 탄원에 대한 야웨의 답변형식으로 구성되고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것을 위해 특별히 후반부에 3번이나 반복되는 야웨의 거주에 관한 문구들을 중심으로¹¹⁾ 후반부를 3개의 단락으로 나누고(을 2:18-27; 2:28-3:17; 3:18-21), 각 단락의 구조와 내용을 분석할 것이다.

2. 요엘 2장 17절에 나타난 3개의 탄원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학자들은 요엘 2장 18절을 후반부를 시작하는 첫 구절이라고 본다.¹²⁾ 따라서 요엘 2장 17절은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구절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요엘 2장 17절은 3개의 탄원을 언급한다.¹³⁾ ‘야웨여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חַוֶּסֶה יְהוָה עַל־עַמּוּךְ), ‘당신의 기업을 이방 나라들이 모욕하고 통치하도록 내주지 마소서’(לֹא־תִתֵּן לְחַרְפָּה לְמַשְׁלָבִים בָּם גּוֹיִם), ‘어찌하여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이방 나라들)이 그들의 하나님 어디에 있느냐 말하게 하나니까’(לָמָּה יִאמְרוּ בְעַמּוּם אֱלֹהֵיהֶם אַיֵּה אֱלֹהֵיהֶם),¹⁴⁾ ‘어찌하여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이방 나라들)이 그들의 하나님 어디에 있느냐 말하게 하나니까’(לָמָּה יִאמְרוּ בְעַמּוּם אֱלֹהֵיהֶם אַיֵּה אֱלֹהֵיהֶם). 이러한 3개의 탄원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요엘서의 전반부와 철저히 연결되어 있다. 한마디로 요엘 1장 1절-2장 16절에 언급된 메뚜기와 가뭄으로 인한 재앙(을 1장)과 야웨의 날에 대한 경고(을 1:15; 2:1-11)에서 비롯된 백성들의 탄원인 것이다.

특별히 백성들은 메뚜기 재앙과 가뭄으로 인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수확하지 못했으며(을 1:10), 밭의 모든 나무들이 시들게 되었다(을 1:12). 이것

11)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을 2:27),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한다’(을 3:17), ‘야웨가 시온에 거할 것이다’(을 3:21).

12) G. W. Ahlström, *위클리*, 132.

13) Marvin A. Sweeney, “The Place and Function of Joel in the Book of the Twelve”, Paul L. Redditt and Aaron Scharf(eds.), *Thematic Threads in the Book of the Twelve* (Berlin: Walter de Gruyter, 2003), 141 참조.

14) 다른 번역을 위해 Raymond B. Dillard, “Joel”, Thomas E. McComiskey(ed.), *The Minor Prophets Vol 1: Hosea, Joel, and Amo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2000), 284 참조.

으로 인해 창고가 비고 곳간이 무너졌으며,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었고 (욘 1:16-17), 시내가 마르고 들의 풀이 불에 타는 재앙을 겪게 되었다(욘 1:20). 요엘서는 이러한 상황을 ‘야웨의 날’ 개념과 연결 짓는다.¹⁵⁾ 요엘 1장 15절은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와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다”고 말한다. 임박한 야웨의 날 개념이 메뚜기와 가뭄의 재앙과 연결되어 모든 것이 야웨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특별히 요엘 2장 1-11절은 야웨의 날을 묘사하는데 야웨가 보낸 군사로 인해 에덴동산 같았던 유다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2절의 “맑고 강한 백성”과 11절의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라는 표현은 심판을 위해 야웨께서 특별히 군대를 동원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 군대가 이방 나라의 군대인지 하늘의 군대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요엘 2장 17절의 ‘당신의 기업을 이방 나라들이 모욕하고 통치하도록 내주지 마소서’와 ‘어찌하여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이방 나라들)이 그들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말하게 하나니까’라는 탄원과 연결해 볼 때 여기서 군대는 야웨가 도구로 삼은 이방 나라로 볼 수 있다.¹⁶⁾

이처럼 요엘 2장 17절의 3개의 탄원은 철저하게 요엘 1장 1절-2장 16절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요엘 2장 17절은 전반부의 상황을 요약하여 정리한 탄원이라고 볼 수 있다.¹⁷⁾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탄원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이 야웨에게 행한 질문 형태를 지닌다. 한마디로 야웨에게 3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¹⁸⁾ 따라서 요엘 2장 17절의 3개의 탄원은 요엘 2장 18절 이하의 서론이라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이것은 전반부를 마무리

15) Otto Plöger, *Theocracy and Eschatology* (Richmond: John Knox Press, 1968), 98; Rex Mason, *윳글*, 106 참조.

16) 송병현, 「호세아·요엘·아모스·오바다」(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3), 330-335 참조.

17) G. W. Ahlström, *윳글*, 131 참조.

18) 아시스(Elie Assis, *윳글*, 161)는 야웨의 답변이 요엘 3장 17절까지 나타난다고 보았고, 스위니(Marvin A. Sweeney, *윳글*, 142)는 요엘 2장 15절-3장 21절을 야웨의 답변으로 보았다.

리하며 후반부를 위한 질문이 되는 것이다.¹⁹⁾

3. 요엘서의 구원신��(을 2:18-3:21[MT 2:18-4:21])

이제 요엘서의 후반부(을 2:18-3:21)를 고찰하고자 한다. 특별히 제사장들의 3가지의 탄원이 각 단락/사이클(을 2:18-27; 2:28-3:17; 3:18-21)에서 야웨의 입을 통해 어떻게 답변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것들을 서로 종합하여 구원신��의 핵심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

1) 첫 번째 사이클(을 2:18-27)

첫 번째 사이클은 요엘 2장 18-27절에 나타난다. 요엘 2장 17절의 탄원에 사용된 단어들이 18절 이하의 야웨의 답변에 사용되며(백성, 불쌍히 여기다 18절; 모욕, 나라들 19절), 특별히 19절에는 ‘야웨께서 대답했다’라는 표현이 나타난다. 이것은 야웨의 답변이 18절 이하에서 시작됨을 암시한다. 여기에서는 1장의 메뚜기 재앙과 가뭄의 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1) ‘불쌍히 여기소서’에 대한 답변(을 2:18-19a)

제사장들의 첫 번째 탄원은 ‘야웨여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על-עלמך יהיה חסדך, 2:17ba¹⁻⁴)이다. 이러한 탄원의 직접적인 원인은 메뚜기와 가뭄으로 인해 땅이 황폐해졌기 때문이다. 요엘 1장은 땅의 황폐로 인해 사람과 가축과 들짐승에게 발생한 다양한 문제를 언급한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10절),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라도”(11절),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12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

19) 스위니(윌글, 141)는 요엘 2장 15-17절이 후반부의 서론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음이니이다”(19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20절). 여기에서 언급된 문제들은 철저하게 물질적인 것과 관련된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나무는 사람과 관련된 것이며, 목장의 풀과 들의 풀은 동물과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사장들은 야웨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탄원하였던 것이다.

특별히 요엘 2장 18-19a절은 이러한 물질적인 문제에 대한 야웨의 답변을 보여준다. 18절에서 예언자는 ‘야웨께서 그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고,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וַיִּקְנָא יְהוָה לְאֶרְצוֹ וַיִּהְיֶה עִלְעָמּוֹ)고 말한다. 이것은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17절)는 탄원에 대한 야웨의 답변이다. 이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유사한 단어가 사용된다(‘너의 백성’[17a절] // ‘그의 백성’[18절]; ‘불쌍히 여기소서’[17a절] // ‘그가 불쌍히 여기리라’[18절]). 한마디로 유사한 표현을 통해 야웨의 답변이 18절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강조한다.²⁰⁾ 이제 19a절은 탄원에 대한 야웨의 실질적인 조치를 언급한다.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여기에서 야웨는 백성들의 삶에 필수불가결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충분한 회복을 약속하고 있다.²¹⁾ 메뚜기와 가뭄으로 인해 하루도 연명하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겠다는 야웨의 약속인 것이다. 한마디로 ‘불쌍히 여겨달라’는 백성들의 탄원에 대한 가장 확실한 야웨의 답변인 것이다. 따라서 첫 번째 사이클의 첫 번째 야웨의 답변은 요엘 1장의 물질적인 문제에 대한 야웨의 물질적인 문제 해결을 보여준다.

(2) 이방 나라의 모욕과 통치에 대한 답변(욨 2:19b-20)

제사장들의 두 번째 탄원은 ‘당신의 기업을 이방 나라들이 모욕하고 통치하도록 내주지 마소서’(וְאַל־תַּחַן נְחַלְתָּךְ לְחַרְפָּה לְמִשְׁלַבִּים גּוֹיִם)라는 것이다. 이리

20) Willem S. Prinsloo, *The Theology of the Book of Joel* (Berlin: Walter de Gruyter, 1985), 62.

21) G. W. Ahlström, *윗글*, 132.

한 탄원은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에 의해 모욕을 당하고 지배를 당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모욕과 지배는 요엘 3장에 자세하게 언급되고 있다. “이는 그들(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흠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3절),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4절),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기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5절),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6절). 이러한 끔찍한 것들을 경험한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야웨에게 ‘당신의 기업을 이방 나라들이 통치하는 모욕을 주지 말라’고 탄원하고 있는 것이다.

요엘 2장 19b-20절은 두 번째 탄원에 대한 야웨의 답변을 언급한다. 19b절은 ‘내가 너희를 다시는 모욕을 당하도록 이방 나라들 가운데 주지 않을 것이다’(לֹא-אֶתֶן אֶתְכֶם עוֹד הַרְפָּה בְּגוֹיִם, 17절, 19b절)과 ‘모욕’(הַרְפָּה, 17절, 19b절)과 ‘주지 말라’(אֵל-תִּתֵּן, 17절)/‘주지 않을 것이다’(לֹא-אֶתֶן, 19b절)와 같은 표현들은 야웨가 제사장들의 탄원에 명확하게 답변하고 있음을 입증한다.²²⁾ 이제 20절은 야웨의 실질적인 조치를 언급한다. 먼저 20a절은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황량한 땅으로 쫓아낼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표적인 적들은 북쪽 나라들인데(앗수르; 바벨론),²³⁾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에서 쫓아내서 멀리 떠나게 하였고, 여러 이방 나라들에 흠어버렸다. 그리하여 여기에서 야웨는 특별히 ‘내가 멀리 떠나게 할 것이다’(אֶרְחִיק)와 ‘내가 그를 쫓아낼 것이다’(הִרְחַקְתִּי)라는 단어를 통해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죄악을 그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한다. 20b절은 ‘그의 상한 냄새가 올라오고 그의 악취가 올라올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북쪽 군대의 시체들이 썩어 악취가 코

22) 율글, 132.

23) 북쪽 군대는 예레미야서(1:14-15; 4:6; 6:1, 22)와 에스겔서(38:6, 15; 39:2)에 언급된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 Hans Walter Wolff, 율글, 62; 방석중, 「호세아/요엘」(성서주석 26;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344-345; 홍성혁, 율글, 205-206 참조.

를 찌른다는 의미이다. ‘그의 썩은 냄새’(בִּישָׁוּ)와 ‘그의 악취’(רִיחַ רָע)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탄원에 대한 야웨의 약속이 확실하게 답변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3) 야웨의 무능력과 야웨와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한 답변(을 2:21-27)

제사장들의 세 번째 탄원은 ‘어찌하여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이방 나라들)이 그들의 하나님님이 어디에 있느냐 말하게 하나니까(מָה אֵלֹהֵיהֶם אֵיךְ יִשְׁאָלוּ אֵלֹהֵי לְבָבָם)이다. 이것은 야웨가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고난을 겪게 되었으며, 야웨가 무관심하여 이스라엘이 고난을 겪게 되었다는 이방 나라들의 조롱인 것이다.²⁴⁾ 한마디로 이것은 야웨의 능력에 대한 조롱이며, 야웨와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의 파기에 대한 조롱인 것이다.²⁵⁾ 이러한 질문은 에스겔 당시에 있었다. 이 당시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겔 8:12; 9:9), 그리고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겔 33:17)라고 한탄하며 야웨를 비난하였다. 한마디로 야웨의 능력과 야웨와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한 질문은 이방인들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이슈가 되는 질문이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것에 대해 에스겔 33-39장의 구원신약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²⁶⁾ 마찬가지로 요엘 선지자도 이러한 질문에 대해 요엘서의 후반부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별히 요엘 2장 21-27절은 이것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한다.

첫째로 21-25절은 야웨의 무능력에 관한 답변을 언급한다. 한마디로 야웨는 능력이 많다는 것이다. 백성들은 가뭄과 메뚜기 재앙으로 많은 고통을 당했

24) Colin M. Toffelmire, *A Discourse and Register Analysis of the Prophetic Book of Joel* (Leiden: Brill, 2016), 125-126 참조.

25) 알스트렘(G. W. Ahlström, 윗글, 20-21)은 이러한 질문은 야웨의 무능력과 관계되며, 나아가 이것은 언약 사상과 연결된다고 보았으며, 볼프(H. W. Wolff, 윗글, 52)는 이러한 질문은 언약 백성의 자각이 끝났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크렌쇼(James L. Crenshaw, 윗글, 143)는 이러한 질문이 야웨의 무능력과 백성들에 대한 야웨의 무관심과 관련된다고 보았다.

26) 김래용, “에스겔 33-39장에 나타난 구원신약의 기능,” 『구약논단』, 67집 (2018년 3월), 10-45 참조.

다. 이로 인해 야웨의 능력에 의구심이 일어났고 이방 나라들은 야웨의 능력을 무시하였다. 그리하여 이 단락은 야웨의 능력을 강조하는데, 특별히 가뭄과 메뚜기 재앙의 회복을 통해 야웨의 능력을 강조한다. 먼저 21-23a절은 서론으로 3개의 대상을 통해 야웨의 능력을 부각시킨다. 특별히 야웨의 명령 + 이유 접속사 + 야웨의 능력의 구조로 전개된다. 첫째 대상은 땅이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이는 야웨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21절). 둘째 대상은 들의 짐승이다. ‘들짐승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그것들의 힘을 내기 때문이다’(22절). 셋째 대상은 시온의 자녀들이다. ‘시온의 자녀들이 너희 하나님 야웨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는 그가 너희에게 적절하게 비를 주시기 때문이다’(23a절). 여기에서 ‘땅과 들짐승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은 야웨께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음을 전제하며, ‘땅과 시온의 자녀들에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명령은 야웨께서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 될 수 있음을 전제한다. 한마디로 가뭄과 메뚜기 재앙으로 인한 절망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분이 야웨라는 것이다.

23b-25절은 야웨의 실질적인 조치(가뭄과 메뚜기 재앙 해소)를 언급한다. 먼저 23b-24절은 가뭄의 문제 해결을 언급한다. 23b절은 ‘그가 너희에게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시리니(נָתַן לָכֶם אֶת-הַמּוֹרָה לְצַדִּיקָה)’,²⁷⁾ ‘그가 이전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וַיִּזְרַךְ לָכֶם גֶּשֶׁם מוֹרָה וּמְלָקוֹשׁ בְּרֵאשׁוֹן)라고 말한다. 한마디로 야웨께서 더 이상 가뭄의 문제가 없도록 비를 내려 주시겠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적당하게’와 ‘이전처럼’, ‘그가 주다’와 ‘그가 내리다’는 표현들은 야웨의 능력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야웨의 능력으로 비가 통제된다는 것이다. 24절은 야웨의 능력으로 인한 가뭄 해결의 결과

27) ‘그가 너희에게 이른 비를 적당하게 내릴 것이다’라는 표현에서 ‘적당하게’를 ‘의의 교사로 해석하여 ‘그가 너희에게 의의 교사를 보낼 것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 김희보, 「구약 요엘 주해」, (서울: 총신대학 출판부, 1985), 152-156 참조.

를 언급한다. ‘타작마당들은 곡식으로 가득 차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특별히 ‘가득 차다’(מלא)와 ‘넘치다’(שׁיב)라는 표현은 가뭄의 온전한 해결을 강조한다. 즉 야웨의 온전한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다. 25절은 메뚜기 재앙의 문제 해결을 언급한다. 25a절에서 야웨는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팔중이가 먹은 햇수대로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리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내가 갚아주리라’(שׁלְמֵתִי)는 표현은 야웨께서 능력이 있다 사실을 부각시키며, ‘햇수대로’(אֶת-הַשָּׁנִים)라는 표현은 야웨의 관심과 사랑을 부각시킨다. 한마디로 야웨께서는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어서 그의 능력을 통해 온전히 손해를 보상해 주시겠다는 것이다.

둘째로 26-27절은 야웨와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의 친밀성에 대한 답변을 언급한다. 이것을 위해 야웨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나와 너의 관계’로 부각시킨다. 3단계로 전개되는데 점층법이 사용된다. 1단계는 야웨의 능력으로 인해 ‘너희는 먹고 만족할 것이다’(26aa절)라고 말하고, 2단계는 그리하여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웨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26ab절)라고 말한다. 3단계는 그 결과 ‘너희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가 너희 하나님 야웨이며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27a절)라고 말한다. 야웨의 능력으로 백성들이 풍족하게 되고, 그로 인해 야웨를 찬양하며, 야웨를 바르게 알게 된다는 것이다. 야웨의 능력과 야웨와 이스라엘의 관계성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특별히 여기에 ‘나의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표현이 2번(26b절, 27b절)이나 반복되는데, 야웨는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이라고 칭함으로써 둘 사이의 관계를 부각시킨다. 이런 점에서 이 단락은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야웨의 명확한 답변이 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첫 번째 사이클에서 야웨의 답변은 이 당시에 가장 시급한 문제였던 물질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²⁸⁾ 이것을 통해 야웨는 그의

28) Leslie C. Allen, *The Books of Joel, Obadiah, Jonah and Micah*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능력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그와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의 친밀성을 부각시키고 있다.²⁹⁾

2) 두 번째 사이클(을 2:28-3:17[MT 3:1-4:17])

두 번째 사이클은 요엘 2장 28절-3장 17절에 나타난다. 이 단락은 야웨의 날 개념(을 2:31; 3:14-15)을 사용하여 제사장들의 3가지 탄원에 답변하고 있다. 요엘서의 전반부에 간략하게 언급된 야웨의 날 개념(을 1:15; 2:1-3, 10-11)이 여기에서 보충된다. 이 단락에서 특이한 것은 야웨의 날 개념을 통해 이방 나라들의 심판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과 구원을 부각시킨다는 것이다.

(1) ‘불쌍히 여기소서’에 대한 답변(을 2:28-32[MT 3:1-5])

이 당시 백성들은 메뚜기와 가뭄의 재앙으로, 그리고 이방 나라들의 억압으로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었다.³⁰⁾ 메뚜기와 가뭄의 재앙으로 인해 백성들은 먹고 마시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을 1:2-20), 이방 나라들의 침략으로 인해 땅을 잃고 포로로 끌려가 흩어져 살게 되었으며, 심지어 소년과 소녀들이 성의 노예가 되고, 백성들은 이방 나라로 팔려가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었다(을 3:1-8). 이것은 백성들에게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을 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성들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한 야웨의 답변이 요엘 2장 28-32절에 나타난다.

먼저 요엘 2장 28-29절(MT 3:1-2)은 영적인 회복을 언급한다. 28a절에서 야웨는 ‘내가 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을 것이다’(אֶפְשֵׁן אֶת־רוּחִי עַל־כָּל־בָּשָׂר)

Publishing Company, 1976), 97.

29) 배정훈은 메뚜기와 가뭄으로 인한 자연재해를 백성들이 종말에 관한 계시(야웨의 날)로 받아들였고, 이로 인해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배정훈, “구약성서에 나타난 회개운동의 모델 연구”, 『구약논단』 65집 (2017년 9월), 118-121 참조.

30) Leslie C. Allen, *윗글*, 98 참조.

라고 약속하신다. 여기에서 כָּל-בְּשָׂרָה (콜-바사르/모든 육체)는 문맥상 예루살렘과 유다의 백성을 의미한다.³¹⁾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에게 야웨의 영을 부여주시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야웨의 영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8aβ-b절은 '너희 아들과 딸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라고 말한다.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는 것은 절망 가운데서 벗어나 소망을 갖는다는 것이다.³²⁾ 메뚜기와 가뭄과 이방 나라들의 핍박으로 인해 피폐해진 영이 온전히 소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29절은 야웨께서 심지어 '남종과 여종에게도 야웨의 영을 부여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다양한 계층(아들, 딸, 늙은이들, 젊은이들, 남종, 여종)을 상세하게 나열함으로써 모든 육체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요엘 2장 30-32절(MT 3:3-5)은 구원의 희망을 언급한다. 앞에서 물질적 회복(을 2:18-19a)과 영적 회복(을 2:28-29)을 약속한 야웨는 이제 구원의 희망을 약속한다. 이것은 야웨의 날 개념을 통해 묘사된다. 여기에서 야웨의 날은 야웨가 주도하는 심판의 날로 묘사된다. 특별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는 표현(30절)과 '해가 어둡으로 달이 피로 바뀐다'라는 부정적인 표현(31절)을 통해 야웨의 날이 구원보다는 심판 날이라는 사실이 강조된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32절은 구원의 방법에 대해 언급한다. 먼저 32a절은 구원의 방법을 소개한다. '야웨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יִקְרָא בְּשֵׁם יְהוָה יִמְלֵט)' 위의 단락과 연결지어 보면 여기에서 '야웨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유다와 예루살렘 자손들(아들, 딸, 늙은이들, 젊은이들, 남종, 여종)을 의미한다. 야웨의 영을 받아 소망을 갖게 된 모든 계층들 가운데 야웨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32b절은 이유 접속사 כִּי(키/왜냐하면)를 사용하여 이것을 보충한다.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בְּיִרוּשָׁלַם וּבְצִיּוֹן)

31) James L. Crenshaw, *유타*, 165; Otto Plöger, *유타*, 103; Leslie C. Allen, *유타*, 98.

32) 림버그(James Limburg)는 '영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James Limburg, *Hosea-Micah* (Atlanta: John Knox Press, 1988), 71 참조.

בְּהֶרֶר־צִיּוֹן) 야웨가 부른 남은 자들 가운데(אֲשֶׁר יְהוָה קָרָ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언급된 ‘시온 산과 예루살렘’은 야웨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며, ‘야웨가 부른 남은 자들’은 위의 단락과 연결하여 보면 야웨의 영을 받은 야웨의 특별한 백성을 의미한다.³³⁾ 따라서 이 단락은 야웨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야웨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겠다는 야웨의 의지와 약속인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불쌍히 여겨달라’는 백성들의 물질적이며 영적인 문제를 야웨께서 온전히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2) 이방 나라의 모욕과 통치에 대한 답변(을 3:1-13[MT 4:1-13])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제사장들의 두 번째 탄원은 ‘당신의 기업을 이방 나라들이 모욕하고 통치하도록 내주지 말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야웨의 답변이 요엘 3장 1-13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되는데, 2개의 단계로 전개된다.

첫 번째 단계(1-8절)는 이스라엘을 모욕했던 이방 나라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동시에 야웨의 보복/원수 갚음을 강조한다. 이것을 위해 2개의 대상이 제시되는데(1-3절; 4-8절), 고발과 보복 혹은 보복과 고발의 구조가 적용된다. 첫 번째(1-3절) 대상은 ‘모든 나라’(כָּל־הַגּוֹיִם)인데, 보복과 고발의 구조가 적용된다. 먼저 1-2ba³절은 야웨의 보복을 언급한다. 야웨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אָשִׁיב) 때, 내가 모든 나라를 모아(קָבַצְתִּי), 내가 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게 할 것이며(הוֹרִדְתִּי),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 심판할 것이다(אֶשְׁפָּטֶנּוּ)’라고 말한다. 특별히 4개의 1인칭 동사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심판의 주체가 야웨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점층법(모으다; 내려가게 하다; 심판하다)이 사용되는데, 이것은 심판의 주체인 야웨의 보복 의지를 보여준다. 즉 이스라엘이 귀환하는 날 이방 나라들을 모으고 집결시켜 심판할 것이라는 분명한 보복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제 2ba⁴-3절은 야웨의 고

33) Otto Plöger, *원글*, 103 참조. 플뢰거는 여기에서 ‘모든 이스라엘’은 종말론적인 신앙에 반응하며, 야웨의 날을 증명한 실체로 고려하는 ‘이스라엘’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발을 언급한다. 야웨는 이방 나라들이 ‘나의 백성과 나의 기업 이스라엘을 대항했다’(עַל-עַמִּי וְנַחְלָתִי יִשְׂרָאֵל) 2ba⁴6절)고 말한다. 그러면서 5가지의 죄악을 고발한다(2ba⁷-3절). ‘그들은 (이스라엘을)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렸고’(בָּזְרוּ), ‘그들은 나의 땅을 나누었고’(חָלְקוּ), ‘그들은 나의 백성을 제비 뽑았고’(יָרָו), ‘그들은 창녀를 위해 소년을 주었고’(יָמְנוּ), ‘그들은 포도주를 위해 소녀를 팔고’(כָּרָו) 그들은 마셨다’(שָׁתוּ). 이러한 끔찍한 죄악이 이방 나라에 의해 야웨의 땅과 백성에게 행해진 것이다. 여기에서는 6번의 ‘그들이 … 했다’는 3인칭 복수 동사를 통해 이방 나라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으며, ‘나의 땅’과 ‘나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통해 심판의 이유가 철저하게 이스라엘과 관련됨을 강조한다.

두 번째(48절) 대상은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인데,³⁴⁾ 고발과 보복의 구조가 적용된다. 먼저 4-6절은 이들의 죄악을 고발한다. 4절에서 야웨는 이들이 야웨의 보복의 대상임을 강조한다. ‘나는 빠르고 신속하게 너희의 보복(גְּמוּלָה)을 너희의 머리에 돌릴 것이다.’ 특별히 ‘빠르고 신속하게’라는 표현을 통해 야웨의 분노가 이들에게 있음을 강조한다. 5-6절은 그들의 죄를 고발한다. ‘너희들이 나의 은과 금을 취하였고’(לָקַחְתֶּם), ‘너희들이 나의 진기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고’(הִבֵּאתֶם), ‘너희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자손들을 헬라족들에게 팔아(מְכַרְתֶּם) 그들의 영토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였다.’ 여기에서 고발의 핵심 내용은 약탈이다. 이방 나라들은 야웨의 성물과 야웨의 백성을 약탈하여 자기 멋대로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죄악으로 인해 야웨께서는 빠르고 신속하게 보복하겠다는 것이다. 7-8절은 보복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한다. 앞에서 사용되었던 מְכַר(마카르/팔다, 6절)와 גְּמוּלָה(게물/보복, 4절)을 사용하여 야웨께서 이방 나라들의 죄악을 철저하게 보복할 것이라고 말한다. ‘내가 너희들이 팔았던(מְכַר) 그 장소로부터 그들을 일으킬 것이며, 내가 너희의 보복(גְּמוּלָה)을 너희의 머리에 돌릴 것이다’(7절),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유다 자손의 손에 팔

34)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4-8절을 후대의 첨가로 간주한다. Julius A. Bewer, *Obadiah and Joel* (Edinburgh: T. & T. Clark, 1911), 56; Otto Plöger, *유태교*, 102 참조. 그러나 알스트롬은 이 단락을 요엘의 오리지널 메시지로 본다. G. W. Ahlström, *유태교*, 135 참조.

것이며(מִכָּר), 그들은 너희의 자녀들을 먼 나라 세바에 팔 것이다(מִכָּר, 8절). 이스라엘을 노예로 팔았던 이방 자손들이 이제는 노예가 되어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먼 곳으로 팔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방 나라들의 죄를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야웨는 이방 나라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탄원에 명확하게 답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두 번째 단계(9-13절)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야웨의 심판에 초점을 맞춘다. 이것을 위해 전쟁 모티프(motif)와 추수 모티프가 사용되는데, 이러한 모티프들은 야웨의 능력과 이방 나라들의 연약함을 부각시킨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통치하였던 이방 나라들의 보잘것없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9-12절은 전쟁 모티프를 사용하여 야웨의 심판을 언급한다. 야웨는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너희들은 전쟁을 준비하고’(מִלְחָמָה, 9a절) ‘너희들은 용사들을 깨우고’(הִעֲרִירוּ), ‘모든 전사들이 가까이 나아와 올라오게 하라’(יָעֲלוּ, 9b절), ‘너희들은 칼을 위해 너희들의 보습을, 창을 위해 너희들의 낫을 치라’(כִּתְמוּ, 10a절),³⁵⁾ ‘약한 자들은 내가 용사라고 말해라’(יֵאמְרוּ, 10b절), ‘사면의 모든 이방 나라들이 속히 와서 모이라’(עוֹשֵׂי גְבוּאָה, 11a절),³⁶⁾ ‘이방 나라들이 여호사밧 골짜기로 일어나 올라오라’(יַעֲלוּ וְיִעֲרְרוּ, 12a절). 이 단락은 점층법을 사용하고 있다. 9개의 동사를 통해 철저한 전쟁 준비를 묘사한다. 9절은 싸울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총동원하라는 명령이며, 10절은 전쟁을 위해 가능한 모든 무기와 자신감을 갖추라는 명령이며, 11a절과 12a절은 전쟁을 준비한 모든 군사들이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이라는 명령이다. 이렇게 야웨께서 철저한 전쟁 준비를 명령한 이유는 무엇인가? 12b절에서 야웨는 ‘이는 내가 거기에 앉아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한다. 심판을 위해 이방 나라들을 모이라고 했던 것이

35) 요엘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이유를 위해, 왕대일, “보습을 쳐서 칼을, 낫을 쳐서 창을”(을 3:10a[H 4:10a])—칼을 쳐서 보습을, 창을 쳐서 낫을”(사 2:4a; 미 4:3a)에 대한 요엘서의 도전, 그 해석학적 진단, 「구약논단」 62집 (2016년 12월), 14-43 참조.

36) 이 구절의 번역의 문제를 위해 김희보, 뒷글, 226 참조.

다. 그런데 왜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하고 모이라고 했는가? 이것은 야웨의 능력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방 나라의 무능력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제까지 이방 나라들은 야웨의 백성과 야웨의 기업을 모욕하고 착취하며 이스라엘을 간섭하고 통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성들은 ‘당신의 기업을 이방 나라들이 모욕하고 통치하도록 내주지 말라’고 탄원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야웨는 이방 나라들이 야웨 앞에서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강조하기 위해 전쟁을 철저하게 준비케 한 것이다. 한마디로 이방 나라를 조롱하고 보복하고자 하는 야웨의 의도인 것이다.

13절은 추수 모티프를 사용하여 이방 나라들의 완전한 소멸을 강조한다. 3개의 추수와 관련된 표현이 사용된다. ‘너희는 낫을 대어라. 이는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와서 밭아라. 이는 포도주 짜는 틀이 가득 찼기 때문이다’, ‘포도주 독이 넘쳐 흐른다. 이는 그들의 악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낫으로 곡식을 베고, 포도를 포도주 틀에 넣고 밭아 짜고, 포도주 독에 담는다는 표현은 추수의 완성, 즉 심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곡식과 포도를 추수하듯이 이방 나라들을 추수하여 심판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13절의 추수 모티프는 이방 나라들의 완전한 소멸을 강조하는 것으로 더 이상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통치/관할하는 일이 없게 된다는 야웨의 답변인 것이다.

(3) 야웨의 무능력과 야웨와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한 답변(을 3:14-17[MT 4:14-17])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들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는 이방 나라들의 질문은 야웨의 무능력과 야웨와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 파기에 대한 조롱이다. 이스라엘에 메뚜기와 가뭄의 재앙이 임하고 주변의 이방 나라들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이러한 질문이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한 야웨의 답변이 요엘 3장 14-17절에 나타난다.

먼저 14-15절은 야웨의 무능력에 대한 답변을 묘사하는데, 특별히 야웨의 날 개념이 사용된다. 14절은 '사람이 많음이여,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이는 심판의 골짜기에 야웨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³⁷⁾ 앞의 단락(을 3:9-12)과 연결지어 보면 '많은 사람'은 '모든 이방 나라들'을 가리키며, '심판의 골짜기'는 '여호사밧 골짜기'를 가리킨다.³⁸⁾ 한마디로 '모든 이방 나라들'이 '심판의 골짜기'에 모인 것이다. 그 이유는 야웨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것은 야웨가 심판의 주체이며, 모든 이방인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며 야웨의 능력을 조롱하던 이들에게 야웨께서 그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권한을 가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15절은 야웨의 날에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그들의 빛을 거두어들인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주적인 심판을 의미할 수 있으나, 문맥을 통해 보면 이방 나라들에게 더 이상 희망의 빛이 없음을 상징적으로 강조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방 나라들에 임할 야웨의 철저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16-17절은 야웨와 이스라엘 사이의 친밀성을 강조한다. 이것을 위해 4단계의 점층법이 사용된다. 1단계는 '야웨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그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라고 말한다(16a절). 야웨와 이스라엘 사이의 연결고리를 위해 야웨의 거주지를 먼저 언급하는 것이다. 2단계는 '야웨가 그의 백성에게 피난처가 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산성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16b절). 한 단계 더 나아가 둘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그의 백성', '피난처', '산성'이라는 단어가 사용된다. 3단계는 '내가 야웨 너희 하나님이며,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거함을 너희가 알 것이다'라고 말한다(17a절). 둘 사이의 관계 회복으로 인해 백성들이 야웨를 정확하게 인지하게

37) '사람이 많다, 사람이 많다'는 표현은 '요란하다, 요란하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더글러스 스튜어트, 「호세아-요나」(김병하 옮김), (서울: 솔로몬, 2011), 496 참조. 원제는 Douglas Stuart, *Hosea-Jonah* (WBC 31: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1987).

38) '여호사밧 골짜기'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위해, 왕대일, *릿글*, 32-34 참조.

된다는 것이다. 이제 4단계는 결론 역할을 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야웨의 온전한 보호를 강조한다. ‘예루살렘은 거룩하게 될 것이며, 이방인들은 다시는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할 것이라’(17b절). 한마디로 야웨의 능력으로 이방 나라들을 심판했기에 다시는 그들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지 못할 것이며, 이로 인해 야웨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더욱 견고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요엘 3장 14-17절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야웨의 답변이 되는 것이다.

3) 세 번째 사이클(올 3:18-21[MT 4:18-21])

세 번째 사이클은 비교적 간략하다. 아시스는 이 단락이 요엘서의 결론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³⁹⁾ 그러나 두 번째 단원에 대한 야웨의 답변이 새롭게 언급된다(애굽과 에돔의 심판)는 점에서 알스트뢰은 이 단락이 야웨의 약속을 반복하며 앞의 단원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보았다.⁴⁰⁾ 따라서 요엘 3장 18-21절은 요엘서의 결론이라기 보다는 세 번째 사이클을 언급한다고 볼 수 있다.

(1) ‘불쌍히 여기소서’에 대한 답변(올 3:18[MT 4:18])

첫 번째 사이클에서 야웨는 이스라엘의 물질적 회복, 두 번째 사이클에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약속하였다. 이제 세 번째 사이클에서 야웨는 물질적 회복과 영적 회복을 약속한다. 18a절은 물질적인 회복을 언급한다. ‘그날에 산들은 새 포도주를 흘려내리고(פִּיטִּי), 언덕들은 젖을 흘려내리고(פִּיטִּי), 유다의 모든 개울들은 물을 흘려내릴 것이다’(פִּיטִּי). 여기에서 야웨는 물질적인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약속한다. 첫 번째 사이클에서 야웨는 메뚜기와 가뭄으로 인한 먹거리(곡식; 새 포도주; 기름)의 회복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부분적인 해결이

39) 아시스(Elie Assis, 윗글, 245-255)는 요엘 3장 18-21절을 요엘서의 결론으로 보는데, 18절은 경제적 재앙(올 1:2-2:27)에 대한 결론 역할을 하며, 19-21절은 정치적 재앙(올 2:28-3:17[MT 3:1-4:17])에 대한 결론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40) G. W. Ahlström, 윗글, 134.

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야웨는 신들과 언덕들과 모든 개울들의 회복을 약속한다. 이것은 황폐했던 모든 곳의 회복을 의미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약속함으로써 다시는 물질적 부족이 없게 된다는 확신을 주고 있는 것이다.

18b절은 영적인 회복을 언급한다. ‘그 날에 야웨의 집으로부터 샘물이 흘러 나와(נִצְּרָ) 시딤 골짜기를 적실 것이라(יִרְפֵּן). 여기에서 ‘야웨의 집’과 ‘시딤 골짜기’는 영적인 것과 관련된다. 시딤은 출애굽 한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게 된 장소이다. 시딤에서 바알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고 열병으로 이만 사천 명이나 죽었다(민 25장). 그리하여 이스라엘 역사에서 시딤은 영적 타락을 보여준 곳이다. 그런데 이제 야웨의 집으로부터 샘물이 흘러나와 시딤을 적신다는 것이다. 이것은 영적인 회복을 강조하는 것이다.⁴¹⁾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야웨께로 돌아오라’(을 2:13)는 영적인 선포에 무감각했던 백성들에게 야웨께서는 그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고(을 2:28-29), 이제는 성전으로부터 샘물이 흐르게 하여 온전히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2) 이방 나라의 모욕과 통치에 대한 답변(을 3:19-20[MT 4:19-20])

이방 나라의 모욕과 통치에 대한 탄원에 대해 야웨는 첫 번째 사이클에서 ‘북쪽 군대의 심판’을 약속하였고, 두 번째 사이클에서 ‘만국 및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의 심판’을 약속하였다. 여기에서는 ‘애굽과 에돔의 심판’을 약속한다. 지리적으로 볼 때 심판의 대상이 이스라엘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향하고 있다.

19절은 ‘애굽은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량한 광야가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유다의 자손들을 폭행하고 그들의 땅에 무죄한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백성들에 대한 폭행과 살인 때문에 야웨께서 애굽과 에돔을 황폐하게 만

41) 스위니는 ‘야웨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는 표현은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의 갱신 또는 회복을 상징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Marvin A. Sweeney, *The Twelve Prophets Vol. 1*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2000), 184 참조.

든다는 것이다. 심판의 이유가 철저하게 백성들과 관련된다. 때뚜기와 가뭄으로 황폐하게 된 이스라엘처럼 이제 야웨의 백성에게 폭행을 가하고 살인을 저지른 애굽과 에돔이 황폐하게 된다는 것이다. 모욕의 주체가 모욕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20절은 ‘유다는 영원히 있을 것이며,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영원히’(עַלְמָד)와 ‘대대로’(דֹר ודֹר)라는 표현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영존성을 강조한다. 이제까지 이들은 포로로 끌려가 흩어져 살았으며 모욕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었다. 그런데 이제 야웨는 예루살렘과 유다가 ‘영원히’ ‘대대로’ 존재할 것이라고 약속한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다시는 이방 나라들의 모욕과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는 약속이다. 한마디로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들의 모욕과 통치에서 온전히 벗어나 야웨의 영원한 소유와 기업이 된다는 것이다.

(3) 야웨의 무능력과 야웨와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한 답변(을 3:21[MT 4:21])

요엘 3장 21절은 야웨의 능력과 야웨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1인칭과 3인칭을 통해 언급한다. 21a절은 1인칭 표현을 통해 야웨의 능력을 부각시킨다. ‘내가 그들의 피를 갹아주지 않았으나 갹아줄 것이다’(וְנִקֵּיתִי דַם לֹא־נִקֵּיתִי).⁴²⁾ 여기에 언급된 נִקָּ (나카)는 ‘정결하게 하다’와 ‘갹아주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여기에서는 ‘갹아주다’는 의미로 번역하였는데, 그 이유는 19절의 ‘이방 나라들이 유다의 자손들을 폭행하고 그들의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렸다’는 표현과 매끄럽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유다 자손을 폭행하고 피를 흘린 자들에게 야웨께서 그의 능력으로 되갹아준다는 것이다. 21b절은 3인칭 표현을 통해 야웨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언급한다. ‘야웨께서 시온에 거하신다’(שָׁכַן בְּצִיּוֹן, וַיְהִי). 여기에서는 분사 שָׁכַן(쇼켄/거주하다)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야웨께서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쳐 미래까지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42) KJV는 21a절을 “I will cleanse their blood that I have not cleansed”로 번역한다.

강조하는 표현이다.⁴³⁾ 한마디로 ‘그들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는 이방인의 조롱에 대해 야웨께서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4. 결론

요엘서의 전반부와 후반부는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특별히 요엘 2장 17절은 이 둘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데, 제사장들의 3개의 탄원을 포함한다. 그런데 요엘 2장 17절의 앞에 위치한 36개의 절(을 1:1-2:16)은 3개의 탄원에 대한 배경이 되며, 요엘 2장 17절의 뒤에 위치한 36개의 절(을 2:18-3:21)은 3개의 탄원에 대한 야웨의 답변이 된다. 여기에서는 요엘서의 후반부(을 2:18-3:21)에 초점을 맞추어, 후반부에 언급된 3개의 단락/사이클(을 2:18-27; 2:28-3:17; 3:18-21)에 제사장들의 3개의 탄원에 대한 야웨의 답변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고찰하였다.

첫 번째 탄원은 ‘불쌍히 여기소서’인데, 첫 번째 사이클에서 야웨는 백성들의 물질적 회복을 약속하였고, 두 번째 사이클에서는 영적 회복을 약속하였으며, 세 번째 사이클에서는 물질적 회복과 영적 회복을 약속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야웨는 메뚜기와 가뭄으로 인한 백성들의 가장 시급한 물질적 문제와 이방 나라의 억압으로 인해 피폐해진 영적인 문제를 온전히 해소하겠다는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탄원은 ‘이방 나라가 주의 기업을 모욕하고 통치하도록 내주지 마소서’이다. 첫 번째 사이클에서 야웨는 ‘북쪽 군대’의 심판을 언급하며, 두 번째 사이클에서는 ‘만국 및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의 심판을 언급하는데, 특별히 야웨의 날 개념을 사용하여 이들의 철저한 심판을 강조한다. 세 번째 사이클은 ‘애굽과 에돔’의 심판을 언급한다. 야웨의 심판이 지리적으로 북쪽에서 남쪽을 향하고 있다. 이것은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의 심판을 의미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야웨는 이스라엘에 대한 모욕과 통치가 다시는

43) 김희보, *뫓글*, 257; 홍성혁, *뫓글*, 201.

없다고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탄원은 ‘그들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이방 나라들의 조롱이다. 이것은 야웨의 무능력과 야웨와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 파기에 대한 조롱인 것이다. 첫 번째 사이클은 야웨의 비를 통한 기쁨 해소와 메뚜기 재앙의 보상을 통해 야웨의 능력을 부각시켰고, 두 번째 사이클은 모든 이방 나라들의 심판의 주체가 야웨임을 통해 그의 능력을 부각시켰으며, 세 번째 사이클은 ‘원수 갚음’을 통해 야웨의 능력을 부각시켰다. 게다가 3개의 사이클 모두 ‘야웨께서 이스라엘/시온/예루살렘에 거할 것이라’는 약속을 통해 야웨와 이스라엘 사이의 친밀성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요엘서의 후반부는 철저하게 요엘 2장 17절의 3개의 탄원에 대한 야웨의 답변형식으로 구성되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의 물질적이며 영적 회복과 더불어 야웨의 백성으로서의 영원하고도 온전한 삶을 강조하는 구원신탁이다.

5. 참고문헌

- 김래용, “에스겔 33-39장에 나타난 구원신탁의 기능”, 『구약논단』 67집 (2018년 3월), 10-45.
- 김희보, 『구약 요엘 주해』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85).
- 더글라스 스튜어트, 『호세아-요나』 (김병하 옮김), (서울: 솔로몬, 2011). 원제는 Stuart, Douglas, *Hosea-Jonah* (WBC 31;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1987).
- 방석중, 『호세아/요엘』 (성서주석 26;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 배정훈, “구약성서에 나타난 회개운동의 모델 연구”, 『구약논단』 65집 (2017년 9월), 112-138.
- 송병현, 『호세아·요엘·아모스·오바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3).
- 왕대일, “‘보습을 쳐서 칼을, 낫을 쳐서 창을’(을 3:10a[H 4:10a])—‘칼을 쳐서 보습을, 창을 쳐서 낫을’(사 2:4a; 미 4:3a)에 대한 요엘서의 도전, 그 해석

- 학적 진단”, 「구약논단」 62집 (2016년 12월), 14-43.
- 홍성혁, “요엘 4장의 묵시적 종말론 모티프와 그 기능: 야훼의 시온 통치를 통한 새 세상 도래 부각”, 「구약논단」 52집 (2014년 6월), 186-216.
- Ahlström, G. W., *Joel and the Temple Cult of Jerusalem* (Leiden: E. J. Brill, 1971).
- Allen, Leslie C., *The Books of Joel, Obadiah, Jonah and Micah*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6).
- Assis, Elie, *The Book of Joel: A Prophet between Calamity and Hope* (New York: Bloomsbury, 2013).
- Barton, John, *Joel and Obadiah*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1).
- Bewer, Julius A., *Obadiah and Joel* (Edinburgh: T. & T. Clark, 1911).
- Crenshaw, James L., *Joel*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8).
- Dillard, Raymond B., “Joel”, Thomas E. McComiskey (ed.), *The Minor Prophets Vol 1: Hosea, Joel, and Amo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2000), 239-313.
- Limburg, James, *Hosea - Micah* (Atlanta: John Knox Press, 1988).
- Mason, Rex, *Zephaniah, Habakkuk, Joel* (Sheffield: JSOT Press, 1994).
- Ogden, Graham S. & Richard R. Deutsch, *Joel & Malachi: A Promise of Hope-A Call to Obedience*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 Co., 1987).
- Plöger, Otto, *Theocracy and Eschatology* (Richmond: John Knox Press, 1968).
- Prinsloo, Willem S., *The Theology of the Book of Joel* (Berlin: Walter de Gruyter, 1985).
- Sweeney, Marvin A., *The Twelve Prophets Vol. 1*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2000).

Sweeney, Marvin A., “The Place and Function of Joel in the Book of the Twelve”, Paul L. Redditt and Aaron Scharf(eds.), *Thematic Threads in the Book of the Twelve* (Berlin: Walter de Gruyter, 2003), 133-154.

Toffelmire, Colin M., *A Discourse and Register Analysis of the Prophetic Book of Joel* (Leiden: Brill, 2016).

Wolff, Hans Walter, *Joel and Amo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7).

검색어

요엘서

요엘 2장 17절

구원 신탁

탄원

요엘서의 통일성

A Study on the Salvation Oracles in the Book of Joel

Rae-Yong Kim, Ph. 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HyupSung University

This paper emphasizes that the second part of the book of Joel is composed of God's responses to the priests' three prayers in Joel 2:17. For this, I divided it into three pericopes on the basis of the expressions related to Yahweh's residence, and then I analyzed the contents and structures of each pericope.

The first prayer is "Spare your people"(KJV). For this, the first cycle says God's promise of economic restoration, the second cycle mentions God's promise of spiritual restoration, and the third cycle refers to God's promise of all restorations. The three promises are God's answers to solve Israel's problems (locusts, drought, and foreign peoples). The second prayer is "Give not your heritage to reproach, that the heathen should rule over them"(KJV). For this, the first cycle refers to the judgment on 'the northern army', the second cycle mentions the judgment on 'all nations and Tyre and Sidon and all the regions of Philistia', and the third cycle says the judgment on 'Egypt and Edom'. The three promises

are God's answers to solve the problems of reproach and governance by foreign peoples. The third prayer is "Why should they say among the people, where is their God?"(KJV). This is a mockery related to both Yahweh's incompetence and cancellation of contract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Israel. For this, the first cycle emphasizes Yahweh's ability by the solution of drought by the rain that God gives and a reward for the disaster of locusts as well, the second cycle stresses His ability by the fact that Yahweh judges all peoples, and the third cycle highlights His ability by His retribution. Furthermore, all of the three cycles emphasize the intimacy between God and Israel by the expression, "Yahweh dwells in Zion/Jerusalem."

In sum, I am sure that the second part/the salvation oracles of the book of Joel is composed as Yahweh's answers to the priests' lamentations of Joel 2:17. Viewed in this light, this study might be a new argument for the solution to the unity of the book of Joel.

Keywords

the book of Joel

Joel 2:17

salvation oracles

lamentation

the unity of the book of Joel

- 투고일: 2019년 4월 2일
- 심사일: 2019년 4월 27일
- 게재 확정일: 2019년 4월 29일